

법정 스님 무소유 실천 공간 문 열어

맑고향기롭게, 광주에 공양나눔의집 개소...1000원 밥상 자비행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는 공양나눔 공간이 광주에서 문을 열었다. 맑고 향기롭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현)는 4월 8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인근 지난동에 공양나눔센터를 건립하고 매일 독거어르신과 결사아동 등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나선다. 이 공간은 법정 스님이 쓴 책 등의 수익금으로 마련한 공간이다.

공양나눔센터는 5.6월경부터 주말을 제외한 매일 점심 소외계층 100명에게 '1000원의 밥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1000원의 밥상'은 1식 3찬으로 구성돼 있으며 먹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1000원을 기부하면 된다.

공양나눔센터는 법정 스님이 사람들에게 해 받은 것을 다시 베푸는 나눔의 일환이다. 공양나눔센터 전세금 5000만 원과 탁자·의자 등 시설비 1400만 원, 운영비

1000만 원 등 7400만 원은 <무소유> 등의 인세 수익금에서 지원됐다.

이금지 운영위원장(광주지부)은 "법정 스님께서 '시주은혜 빛을 꼭 깊어야 한다'는 말씀을 실천하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백반 값 1000원은 법정 스님이 생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더라도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셨던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공양나눔센터는 지하 1층 264㎡(약 80평) 공간으로 주방과 사무실, 식탁을 마련해 5-6월 경 개원식 겸 작은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양나눔센터는 맑고 향기롭게 전국 6개 지부 중 처음으로 설립됐다. 광주·전남지부가 1997년부터 15년간 독거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80명에게 매일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는 등 노후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매일 새벽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 1일 4명 씩, 총 20여명의 도시락 봉사회원이 각 복지관을 돌며 광주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동안 점심 도시락 제공은 회원 250명의 후원금과 자원봉사자 20명의 손길로도 가능했지만 공양나눔센터 사업을 펼치려면 연간 운영비 5000만원과 자원봉사자 50명이 확보 등이 절실하다.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김용덕 씨는 "얼마 전 돌아가신 지원 대상 어르신인 남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갑시다'는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며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매일 배우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 스님의 저작 수익금은 고등학생 31명 1년 학비 6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2년째 장학 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공양나눔센터 봉사자들이 밥을 푸며 웃고 있다.

천태종 대구 동대사 개원 4주년

대성사 주지 유정 스님 주지 겸해

천태종 대구 동대사(주지 유정)는 4월 10일 개원 4주년 기념법회 및 주지 이·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2대 동대사 주지에는 대성사 주지 유정 스님이 취임했다. 유정 스님은 대구 대성사와 동대사 주지를 겸임한다.

동대사 전 주지 도산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대구 대성사 주지를 맡아 2007년 7월 개원부터 대구 대중·생활불교 북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동대사가 위치한 '비내리는 고모령'이 이제는 '햇볕내리는 고모령'이 되었다고 자평한다"며 "신도님

들이 초심 그대로 일상철정으로 부처님법 따라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임주지 유정 스님은 도산 스님의 노고를 치하하며 "우리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동대사가 부처님의 정법이 넘치는 생활도량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정 스님은 "무엇 하나 티끌 붙지 않은 공(公)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의 눈을 크게 뜨기 위해서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욱 끝없는 노력과 수행이 필요하다"며 "동대사 신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선각자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은철 대구지사장

부산 파라미타 2012년 발대식 개최

부산 파라미타정소년협회(회장 백명숙)는 4월 8일 부산 초읍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부산파라미타 부총재 심산 스님(홍범사 주지, 김석조 부산시의회 수석부위원장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2년 신입회원 발대식을 개최

했다. 이날 파라미타 고등부회장은 가야고등학교 2학년 이승현 씨, 중등부회장은 금정중학교 3학년 이재성 씨가 각각 임명됐으며 지도교사도 선임됐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부산 여성불자회 장학금 전달식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양연자)는 4월 11일 부산불교연합회 법당에서 백명숙 부산파라미타 협회장을 비롯한 학생 30명이 모인 가운데 부산여성불자회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간 장학금 후원에 동참해준 회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향후 전 교원장 해충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여는 등 부산여성불자회가 변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연자 부산여성불자회 회장은 "18년

이재진 부산지사장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대법회

서울 법성종 대성사(주지 덕암, 법성종 종정)는 4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대성사 대웅전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법회를 봉행한다.

수도사 일운 스님이 1988년 7월 인도에서 가져와 보관하던 진신사리"라며 "인연되는 불자들과 이웃들이 동참해 부처님 사리를 친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62-2459

노덕현 기자

다문화가족과 함께한 문화역사기행

전주 참풍은우리절(주지 회일) 가람 순례단은 4월 7일 전주 청곡사와 진해 대광사에서 전통문화역사기행을 개최했다.

과 사찰예절을 배우고 진해벚꽃축제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회일 스님은 "다문화가정이 100만을 넘은 현실에서 서로의 문화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호혜적 관점의 교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지 회일 스님으로부터 한국불교 특성

조종태 전북지사장

무등산 풍경소리 100회 맞아

4대종교 성직자들이 모여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음악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무등산풍경소리 음악회가 100회를 맞이했다.

사단법인 무등산풍경소리(공동대표 영광, 중심사 주지)는 4월 14일 100회 공연을 맞아 6-1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우리가 부른 노래들-무등산풍경소리 100회 기념 기록전시'를 개최했다.

2002년 7월 첫 회를 시작으로 매일 한 차례씩 중심사 특별무대와 성당, 원불교 교회에서 열린 풍경소리 음악회는 김두수, 한승원, 열반하신 일철 스님(전 중심사 주지)을 첫 손님으로 시작해 700여명의

노래선과 이야기선들이 출연한 문화행사이다.

특히 촛불집회, 4대강반대집회와 같은 사회현실의 현장에 시민들과 종교가 공감하는 음악무대를 만들었다.

6일부터 시작된 이날 전시회는 1회 공연 사진부터 무등산 풍경소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파노라마 사진으로 담은 전시회로 마련됐다.

기념 공연으로는 수목화 '참새'로 유명한 문인화가 박태후의 퍼포먼스와 소프라노 박계 조선대 교수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김현욱의 연주가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 최초 호스피스 자제병원 상량

10월 지하1층 지상3층규모 완공

정토사 관자재회(이사장 능행)는 4월 1일 울산 정토마을에서 불교 최초로 완화된료 전문 병원인 자제병원 상량식을 개최했다.

정토사 관자재회는 말기암 및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위해 2000년 충북 청원군에 불교계 최초의 호스피스 시설인 정토마을을 개원한 이후로 2005년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에 완화된료 전문 자제병원 건축부지를 마련하여 불사를 시작했다. 현재 50%의 공적으로 10월 완공되며 2013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이 날 상량식에는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부산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 강경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법문했다.

이사장 능행 스님은 "15년 전 수행과 돌봄이 하나 된 행복공동체가 나만의 꿈인 줄 알았는데 오늘보니 여러분들과 함께한 꿈이었다"며 "그 뜻을 소중히 생각해 현실로 만들겠다"고 인사했다.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은 "세계 최초 완화된료 호스피스 자제병원은 울산의 자람"이라며 "전인적 돌봄으로 중증환자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축사에서 "통도사에서 자제병원의 심오한 큰 뜻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드라 스님과 함께하는 '나도 가능하다' 등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4월 1일 열린 불교최초 호스피스 전문병원 울주 자제병원 상량식

조동종 종조 양개 스님 다례제 봉행

승정원장 심월 스님 취임식도 함께 진행

대한불교조동종은 3월 29일 서울 노원구 도선사에서 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총무원장 덕우 스님을 비롯한 200여 대종이 동참한 가운데 조동종 종조 동산 양개 스님 다례제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제에서는 승정원장으로 임명된 심월 스님의 취임식도 함께 봉행됐다.

다례제는 부종정 덕풍 스님의 사회로 동산 양개 스님의 행적 소개가 진행됐으며 종회회장 혜륜 스님의 발원문 낭독이

이어졌다.

총무원장 덕우 스님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이 이 산사에도 전해져 <화엄경>의 산하 대지에 부처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을 깊이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승정원장에 취임하는 심월 스님을 비롯해 종단 주요 스님, 신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정토구현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불교와 도문에는 외롭고 가난한 자만이 성불 득도 하여 최고 도인 신선되는 마음찾아 운명과 수명연장하는 육경신수행 대웅맹정진 및 부처님 불상 미간 백호에 진법의 자성문헌관 찾는 천지공사 명부공사 진법전수

지구촌 천지개벽으로 동방의 빛이 지구촌을 비추니 대한민국 운이 전세계를 비추어 만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하늘이 내리신 대자연의 이비법은 도를 따라오는 자만이 사는 시대가 오는 것이며 즉, 피라미트의 천지공사인 것이다.

◆종생들은 과거에 업장과 지은 공덕이 부족 수명이 짧고 병마로 고생하며 비구 비구니 종생들은 이상 인상 종생상 수자상 업으로 성불 득도가 없으며 열불 목탁 화두 정진 수행으로는 자성을 볼수 없기에 무어 열반 뒤에 제도 한다하셨고 방편 불교 후 후 500세 지계 수복자에 의하여 진법 사구개인 수호 보 영 사계와 진중도 민족업 불천 명, 9자인 사구개로 윤회선이 하나 되는 종생들을 제도 세계 평화 불교 정토로 광신 유포하는 천하 제일의 대 비밀장인 것이며 부처님의 초능력으로 천지공사 및 명부공사하여 생명의 문인 현관찾아 득도하는 것이다.

천지 공사란

천은 평생해도 안되는 성불의 심중자 태양 입법계 자성 문인 마음이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지는 부모님에게 육신을 받은 공덕과 진법을 값고려고 육신의 법당에 들어가서 현관에 주인 만나는 문을 두드려야 유아독존 나를 찾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공사는 찾고 있는 내부처가 현관은 만났으나 폐쇄되어 각종 파충류와 귀신 마귀들이 침범 못하도록 하는 공사이며 열불, 독경, 화두, 정진 등 수행으로는 고행인 것이며 출입문은 오직 현관뿐인 것이다.

명부 공사란

자신의 명을 지키는 명부 운명을 관장하는 삼신은 무간 번뇌 죽임 마귀니와 견적 노은 저승 사자들에게 미리 백을 써서 생애에 관제 삼제 판각고통 악연을 미리막는 명부에 공사하여 출세 급제 통솔 건강 도통 생명을 연장하도록 하는 것은 살은 나무를 봄에 심듯이 금년 윤달은 60년 만에 임진년 윤달 3월 2일(양력 4월 22일)과 29일 양일간 자시와 오시에 입제하오니 평생에 한번 만나는 법회

에 동참하시어 종교 종파 교주를 초월 성불 득도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생애에 최고 스승되어 세계 평화와 행복은 오직 천지공사 해인도법인 갖대는 삼마구니와 삼사자를 제도하는 비법은 오직 진태인인 것이다. 특히 임진년 용머신 회갑을 동창으로 명부 공사 하오니 회갑이란 다시 자손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며 세월이 지나 못한 분들은 양력 4월 22일 일요일 (윤 3월2일) 정오에 잔치 동참금 15만원으로 49일동안 법당과 셋 마귀니와 셋 사자들에게 제물과 촛불을 밝히며 회갑기념으로 진법연화경 책보시도 접수함.

- 성불득도 천지공사입제일 4월 22일 윤 3월 2일 일요일 오시
- 경신 천이통 입제일 - 2012년 4월 28일 윤 3월 8일 토요일 해시 회향일 - 2012년 4월 29일 윤 3월 9일 일요일 해시
- 동참비: 천지 명부공사 합 150만원 49제는 성불득도 및 생명연장법 전수
- 부부 및 개인 33만원 49제 7.7세 살아있는 생전예수제 기도비.
- ※ 본 도량은 석가세존상 만물을 모신 기도소원성취도량입니다.

농협 029-01-167866 관현영(태일) / 팩스번호 02)821-7768 상담전화: 02)821-6622, 010-3239-3110

천지공사 응조 마륜 달마 경신 동통회 010-9781-5113(총무) **삼한 세계불교 달마중 종본산 환성 태일대중사 합장**

서울 부산 동시법회: 사단법인 대한불교 달마조계종 교육원 경문사 상담전화: 051)635-3110, 010-8533-1601 보현스님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오희규실화소설



吳熙奎

운명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주요수록내용

- 궁합이야기
- 내림이야기
- 내박이야기
- 의처중이야기
- 바뀌 놓고 생각하기
- 실수의 흔적
- 우리들의 궁합이야기
- 육체란 무엇인가?
- 입시이야기
- 성형수술이야기
-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 세번 결혼한 검사님
-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 운명의 대부분은 욕심의 반대쪽으로 휘다
-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 ▶생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꿈 해몽비법
- ▶띠로 보는 궁합
- ▶달로 보는 궁합
- ▶시(時)로 보는 궁합
-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 ▶삼재법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곡(망월)동 374-2번지

※ 책을 구입하신 분께는 가시오가피 1박스(1만원) 공짜로 보내드립니다.